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감과 관련요인의 차이 : 아내의 시간, 남편의 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효과

Differential in Married Women's Perceived Time Pressure by Employment : Testing the Effects of Couple Time Use and Housework Outsourcing

차 승 은(Seung-Eun Ch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Suw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time pressure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in Korea. The sample of married couple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2009 (n = 6,948 couple diaries)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ived time pressure over the life cycle of two group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married women's time use, husband's time use as well as hour of domestic outsourcing and whether such factors are associated with lowering perceived time pressure of married women. Results showed employed wives felt almost 3 times more time pressure than non-employed wives, and the gap mostly remained over different life cycles. Total work hour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ing the time pressure of both groups of women, while regenerating time was associated with ameliorating time pressur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time pressure gap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wives can be partly due to the relative length of total labor hours and regenerating time among the two groups. Ordered logit analysis revealed that husband's paid work hours were not associated with wife's feeling rushed, but husband's unpaid work hours were positively linked with time pressure of their wives. Results indicated if employed or non-employed wives are feeling very busy, there is a high chance that husband might give them some help. We found employed wives spend more hours on housework outsourcing, and purchasing goods for housework was not associated with lowering the feeling of pressure of employed wives. There were both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feeling pressed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wives. It implies that social process and its strategies to alleviate the time pressure can be different by women's employment status.

▲주제어(Key words): 시간압박감(perceived time pressure), 총노동시간(total work hour), 가사노동 사회화(housework outsourcing), 기혼여성(married women), 배우자 상호효과(cross-couple effect), 구성요소차이(compositional difference), 효과차이(effect difference)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1693).

* Corresponding Author: Seung-Eun Cha, Wauangil 17 Bongdam-eup Hwasung-si, Gyeonggi-do, Korea, tel: +82-31-229-8026, E-mail: secha@suwon.ac.kr

I. 서론

사람들은 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느낄까? 지금까지 시간압박에 관한 실증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최근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기술과 제도의 발달 부분이다. 개인의 삶의 리듬이 일터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제도화·표준화된 시간으로 대체되면서,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 혹은 '잠식'을 경험하게 된다(H. Ulferts, C. Korunka, & B. Kubicek, 2013). 인터넷, 전화기 등 최신 기술 장비로 인해 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연결·통합(plugged in)되어 있다는 점도 개인이 느끼는 시간부족의 한 측면을 설명한다(M. Bittman, J.E. Brwon, & J. Wajcman, 2009). 기술 발전으로 동시행동(multitasking)이 가능해지면서, 시간경험의 깊이(depth in time)가 강화된 점 역시 현대인의 시간부족을 설명하는 기제의 하나로 지적된다(A. Szollos, 2009).

시간압박감을 야기하는 또 다른 축에는 삶의 역동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역할의 특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시기에 일과 가족이라는 두 개의 구분된 영역에서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시간압박감도 상승한다(S. Bianchi & M. Mattingly, 2003; S. Bianchi, J. Robinson & M. Milkie, 2008; S. Cha, 2011, 2014). 반면, 일과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총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시간압박감은 빠르게 해소된다. 일터나 가족역할에서 수행하는 '노동(labor)'의 증감에 따라, 지각된 시간압박감이 함께 공명하는 양상이다(Cha, 2014).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체험하는 발달적 시간과 거시수준에서 관찰되는 기술 및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현대인의 시간압박감을 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동일한 생애주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수준이 차별적이라는 점이다(M. Mattingly & L. Sayer, 2006).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혼 남녀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압박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M. Bittman & J. Wajcman, 2000). 물론 남성의 장시간 유급노동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간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격차가 크지 않기는 하나,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한다(S. Cha, 2010, 2014).

기혼 여성 중에서도 일터와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하고 있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시간압박감을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 Cha, 2010; L. Craig, 2012; K. Park, 2009). 그런데, 특별히 한국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기의 경력단절을 심하게 겪는 경향이 있고(S. Cha, K. Eun, J. Jun, & K. Fisher, 2015), 40대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시도하는 M자형 경향이 다른 유럽국가 기혼여성보다도 더 두드러진다. 즉, 한국의 기혼여성은 생애과정에서 취업/비취업의 상태를 양립하지 못하고, 취업-비취업의 상태를 번갈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혼 여성이 취업/비취업에 따라 시간압박감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이들이 직업역할을 획득/상실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경험의 간극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간극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시간압박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정보는 여성이 취업/비취업의 전환기에 여성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되는 시간압박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취업여부에 따라 그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가족의 돌봄욕구가 달라지면 취업/비취업 여성이 느끼는 시간압박감에서의 격차가 확대/수렴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직업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 시간압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도 역시 부재하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최근 시간압박감을 탐색한 연구(M. Bittman & J. Wajcman, 2000; S. Cha, 2010, 2014; M. Mattingly & L. Sayer, 2006; K. Park, 2009; M. Son, 2004)들이 주로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자를 주요 분석대상자로 인식하면서,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비노동인구의 무급노동과 시간압박에 관한 주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때문에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어떻게(how) 다르고, 시간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맥락이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기존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생활시간의 자취와 관련이 있다(S. Bianchi, M. Milkey & J. Robinson, 2006). 과거 가족 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needs)는 대체로 여성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통해 여성의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에 최근 연구들은 주목한다. 가족구성원 가운데서도

배우자는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커플의 시간활용에 관한 최근 서구연구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의 시간은 수면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시간 등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S. Burgard & J. Ailshire, 2013; R. Swisher, S. Sweet, & P. Moen, 2004; P. Schober, 2013). 국내연구에서도 남성의 가사노동 및 여성의 돌봄시간간에 상호 연계성이 드러나고 있다(K. Eun, 2009; M. Son, 2004, 2005). 배우자 뿐 아니라 노부모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J. Kim, 2005). 또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활용함으로써, 가족 욕구를 해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H. Koo & K. Lee, 2000; O. Sullivan & J. Gershuny, 2013; T. Van der Lippe, K. Tijens & E. Ruijter, 2004). 가사노동 관련 국내연구들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가사노동이나 돌봄시간이 길지 않고, 남편의 부담율도 높지 않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을 통해 무급노동을 대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S. Kim & E. Kim, 2006; T. Van der Lippe, K. Tijens & E. Ruijter, 2004).

시간사용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로부터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남편의 시간활용, 그리고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수준은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과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지금까지 여성의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함에 있어서 기혼 여성의 시간배분이나 시간관리 상황을 살펴본 연구가 종종 발견되지만, 배우자의 시간활용 혹은 가사노동을 상품이나 용역으로 구매하는 행위와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고찰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평소에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혼 여성이 누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수준이 어떻게 다르고, 그 격차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 자신의 시간배분상황, 가사노동 상품대체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시간활용상황과 같은 관련요인들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비취업여성 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시간압박과 지각된 시간압박감

시간압박(time pressure)은 객관적인 시간배분과 주관적으로 인지된 시간 경험(feeling pressed or feeling rushed)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압박이란, 일정표 상에서 나타나는 압박, 즉 하루 24시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필수시간(잠, 식사, 위생) 및 의무활동(e.g.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서 여유시간을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D. Southerton, 2003). 일과 삶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의무시간은 길고 반면에 여가시간이 짧은 상황을 의미한다(J. Gershuny, 2000).

그에 비해, 지각된 시간압박(이후 시간압박감, perceived time pressure)은 개개인이 시간에 대해 느끼는 정서이다(S. Cha, 2014). 기본적으로 시간압박감은 의무시간의 증감 그리고 그로인한 여유시간분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M. Mattingly & L. Sayer, 2006). 다만, 사회 변화의 속도, 기술의 활용 수준,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겪는 경험들도 시간체험을 결정한다(S. Bianchi, & M. Mattingly, 2003; K. Daly, 1996; A. Szollos, 2009; H. Ulferts, C. Korunka, & B. Kubicek, 2013). 가령, 시간활용상으로는 여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여가를 소비하는 개인은 바쁘다고 느낄 수 있다. 그에 비해, 노동시간이 매우 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발견된다(S. Cha, 2014).

때문에, 객관적인 시간압박이 아닌 지각된 시간압박감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시간배분 상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체험의 심리적·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 Cha, 2014).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살펴봄에 있어서, 개인의 시간배분현황, 시간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사노동 상품대체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상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여성 자신의 24시간 시간운용 뿐 아니라, 그 외에 기술이나 서비스의 활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배우자의 특성들이 여성의 시간압박감과 연동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2. 기혼여성의 시간활용과 시간압박감

(1) 기혼여성의 유급, 무급 그리고 총노동시간과 시간압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압박감은 노동의 장단에 연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대체로 유·무급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수록 시간압박감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기 시간압박연구들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압박감의 경향성을 관련성을 탐색해왔다. 서구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대부분 취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시간압박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맞벌이 가구, 2교대 근무 가구(second shift family)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구도가 가능하지 않았고, 설사 비취업여성이 포함된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도 비취업여성은 취업여부라는 변수 속에 가려져서 그 실체가 조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비취업자들이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급노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은 취업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L. Criag (2012)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유급과 무급노동의 총합인 총노동시간을 구성하여 시간압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시도되었다. 첫째, 총노동시간의 차이로 본다면, 유·무급의 2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취업여성이 무급노동만 수행하는 비취업여성에 비해 총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비취업여성의 중에서도 밀착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나 의존적인 가족원을 돌보는 특수한 사례에서 무급노동시간이 예상외로 길게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기혼여성은 직업경력상 취업과 비취업의 상태를 넘나드는 경력단절과 재진입의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추론함에 있어 유급과 무급의 총노동시간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기혼여성의 노동량을 가늠함에 있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동일한 6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무급 노동의 비중, 그리고 실제 노동 강도는 상황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의 강도는 총노동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였다(L. Craig, 2012; M. Mattingly & L. Sayer,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총노동시간의 양과 총노동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두 집단 간 시간압박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가사노동 사회화와 시간압박감의 관련성

노동, 특히 가사노동은 가족 내의 의사결정에 의해 노동시간의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급노동과는 차별성을 띤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타가족원(e.g. 노부모, 성인

자녀)이 기혼여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산업화의 진전으로 상품을 통해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고 혹은 가사노동 자체가 가사서비스의 형태로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관련 서비스를 받거나 구매를 하는 행위를 가사노동의 사회화(K. Lee, & H. Koo, 1999)로 보고자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타가족원이 가사노동 도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 가구의 세대구성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가계생산이론에 따르면, 가사노동을 상품을 통해 대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 시간의 유의미한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빈도나 그 시간이 길면, 가사노동 자체에 투여하는 시간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종국에는 총노동시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압박감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시간압박,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시간압박의 관련성은 예상외로 간단하지 않다. 우선,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에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시간압박의 관련성이 강하지 않았다(S. Cha, 2011).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는 오히려 낮은 시간압박과 연관이 있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일정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압박이 낮은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S. Cha, 2011). 가사노동이 시간압박감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을 사회화 한 것 자체가 시간압박감을 감소 혹은 유발할 가능성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영국 시간사용 자료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가사노동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의 연구에 따르면, 상품대체를 이용하는 가구가 예상외로 적었고, 또한 상품 대체로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상품대체와 여성의 시간압박감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호주 연구에서도, 일부 정원일이나 집수리 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상품대체는 여성의 실질적인 가사노동시간 감소, 시간압박의 해소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 Creig & J. Bexter, 2014).

이처럼 가사노동 사회화가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시간압박감 해소와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사노동을 사회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시간절약의 차원 이외에 효율성의 측면, 품질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한데 기인할 수 있다(K. Lee, & H. Koo, 1999). 가사노동의 어떤 품목을 상품대체 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식(H. Koo, & K. Lee, 2000)은 개별 가구마다 다를 수 있다.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했을 때, 누구에게 특별히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역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L. Creig, & J. Bexter, 2014). 더욱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이루려면 일정금액의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가용소득이 있느냐의 유무부터, 그것이 아내의 소득인지 혹은 남편의 소득인지도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는 가사노동을 외부조달할 가능성은 아내소득과 연동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해 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는 정도와 수준에서 상이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압박감과 맺고 있는 연계성이 차별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을외식, 가사일 서비스와 같이 생활시간자료에서 허락하는 몇 가지 가사노동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의 합으로 파악하고자. 구체적으로 취업/비취업여성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소요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가사노동 사회화 특성과 시간압박감간의 연계가 두 여성 집단에서 차별적인지 유사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3) 휴식과 재충전의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시간관련 시간과 함께 비노동시간(혹은 여가시간) 생활시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시간압박과 비노동시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 하나는 시간압박을 적게 느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역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시간압박을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S. Cha, 2014). 기존연구결과들이 횡단설계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압박과 비노동시간의 상호 인과성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비노동시간이 시간압박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압박과 관련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 몇 가지 비노동활동들, 특히 그중에서도 휴식과 재충전(regenerating time)의 의미(J. Jun, 2014)를 내포하고 있는 비노동활동이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그 연계방식이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취업여부에 따라 휴식 및 재충전과 관련된 시간사용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에서 차별성이 발견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혼 여성의 집단 내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를 구

체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과 배우자 효과

가족 내 역동에 따라 “바쁘다”고 인지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부간에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서로 주고받는 양상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의 교환에 대해 배우자 “상호전이 효과(crossover effect)”라고 개념화 하였다(J. Pleck & G. Staines, 1985). 그리고 기존의 일-가족갈등, 일-가족 전이 연구들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일-가족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정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L. Hammer, E. Allen & T. Grigsby, 1997; M. Westman & D. Etzon, 1997).

이러한 일-가족갈등, 일-가족전이 연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한 P. Moen(2003)에 따르면, 부부는 정서와 감정, 느낌을 상호전이 할뿐 아니라 시간사용에서 상호간 전이(time crossover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시간 간에 서로 공유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연계성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부부가 생활시간에서 조율하고 협상하는 양상은 최근 시간사용 연구들을 통해 그 범위가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자녀돌봄시간 그리고 최근에는 수면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S. Burgard & J. Ailshire, 2013; S. Cha, 2014; England & A. Srivastava, 2013; J. Lee & G. Jung, 2015; K. Lee, O. Kim, & H. Koo, 1995; P. Schober, 2013; M. Son, 2004, 2005; R. Swisher, S. Sweet, & P. Moen, 2004). 부부간 협상의 결과는 부부 각각의 시간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 시간표의 조정으로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해소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배우자가 장시간 유급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상황인지 혹은 가사일이나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지 그 참여의 수준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시간이 부족하다”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가족 내에서 어디까지가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일”인지가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시간압박감을 완화(혹은 강화)할 수 있다(K. Park, 2009; M. Son, 2004).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에 관한 정보와는 별개로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가중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 특성(spouse factor)’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연구 중에서도 지금까지 커플단위로 시간압박감을 살펴본 연구는

L. Craig & J. Bexter(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몇 개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도 연구에서 부부단위로 시간압박감을 살펴본 연구는 M. Son(2004) 연구가 거의 유일하고, 시간 갈등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주 K. Park(2009)의 연구가 발견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 혹은 배우자의 도움은 아내의 시간압박감을 낮추거나 혹은 시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 Park(2009)의 연구는 소규모 조사연구였고, M. Son(2004)의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역동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취업/비취업 여성의 시간압박감과 그 차이 그리고 배우자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부부의 상호시간 전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수가 많지 않은 원인은 자료수집의 특성에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집한 생활시간자료가 주로 개인의 시간일지로 구성되었고, 가구를 단위로 시간일지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구단위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뿐이다. 시간압박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기술발달, 노동시장이나 노동정책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탓에, 가족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최근 한국여성패널자료에서 가족원들의 시간활용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문답형식의 구조화된 질문방식(stylized questionnaires)이었고, 여성이 기억으로 재구성한 배우자의 생활시간을 기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구원 각자가 시간일지를 작성한 생활시간자료와는 기본적으로 자료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배우자가 본인의 이틀간 이루어진 본인의 시간을 보고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두 부부의 행위를 포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배우자 특성 가운데 배우자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 및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변수로서 피로도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에 활용한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09생활시간자료의 MTUS버전(simple version 5.1)과 2009생활시간자료의 원자료이다.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 원자료에서 가공하기

어려운 몇몇 시간변수(e.g. 막내자녀연령, 집밖에서 외식)가 MTUS 버전에서는 제공되지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변수들은 두 자료에서 추출하여 통합파일을 구축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자료가 시기적으로 최신 자료가 아니기는 하나, 이 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시기가 갖는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통합파일에서 도시(대도시 및 중소도시 포함)에 거주하는 21-55세 기혼여성일지(n=8,892)를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다시 배우자의 일지가 존재하는 일지를 선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일지를 부부쌍(dyadic data)으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여성홀벌이 가구의 경우, 즉 아내취업-남편비취업의 사례는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의 일지는 6,948개이고 중에서 취업여성은 54%에 해당한다.

시간일지를 작성한 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은 39세로, 취업여성의 평균연령이 40세, 비취업여성이 38세로서, 분석 대상자 중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연령이 다소 높았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취업여성에서는 약 33% 그리고 비취업여성은 39%로 나타나, 고학력자의 비중은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자세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변수 구성 방법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혼여성의 특성, 기혼여성의 배우자의 특성 그리고 가구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혼여성의 특성에는 가장 중요한 취업여부와,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취업여부는 “지난일주일 동안 소득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로 보았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 대졸자 이상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기혼 여성의 배우자 특성도 거의 동일하지만,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 대졸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구관련 특성에서는 가계소득, 생애주기변수, 노부모 동거여부,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진 요일이 포함된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단위로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구관련 변수의 구성이 가능하다. 가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자료에서 소득구간별로 조사된 11개 단계로 조사된 항목에 중간값(50-100만원 구간인 경우 75만원으로 환산)을 취하여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한 후,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의 임금소득의 총

Table 1. Time use variable measurements

Time use variables	Contents	Distribution (in minutes) - Wife - husband
Paid work related time use	work related activity + work at home+ second job work hour	husband cut: 0%, 25%, 75% (0, 150, 510)
Unpaid work related time use	house chores (cook, wash up, cleaning, manage house, other house related chores) + care work + knit and sew(mending clothes)	husband cut: 0, 50%, 75% (0, 50, 110)
Total work hour	Paid work + Unpaid work	wife cut: 0, 25%, 50%, 75% (0, 290, 430, 560)
Outsourcing time	consume house work related service + eat out	wife cut: 0, 25%, 50%, 75% (0, 30, 60, 100)
Regenerating time	dress or personal care + meal or snack+ sleep+ relax	wife cut: 0, 25%, 50%, 75% (0, 540, 600, 670)

합을 구하였다. 생애주기변수는 MTUS 자료에서 제시하는 막내자녀연령 변수와 응답자 연령 변수의 조합을 통해 구축하였다. 생애주기 변수는 해당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를 추론하기 위해 6개 집단, 즉 기혼여성 연령 40세 이하이면서 가구 내 자녀가 없는 경우, 막내자녀 연령이 0-4세, 5-12세, 13-17세, 18세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혼여성 연령 40세 이상이면서 가구 내 자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노부모 동거여부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가구원 번호와 대표가구원과의 관계 조합을 통해 성인가구와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노부모동거가구로 인식하고 그 외 가구(부부가구 혹은 부부-자녀의 2세대 가구)로 구분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요일은 주 7일이 모두 포함되지만, 분석의 간편성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주말로 구분하였고, 그 외는 평일로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종류는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생활시간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시간변수(이하 시간변수)의 종류는 모두 4가지로 유급노동 관련시간, 무급노동 관련시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과 재충전 시간이 있다. 이 중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관련변수 2가지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유급과 무급노동시간의 총합인 총노동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은 주로 기혼여성의 시간에서 추출하였고, 휴식과 재충전시간 역시 기혼여성의 시간일지에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간관련 변수들은 모두 연속변수의 형태가 된다. 다만, 대부분의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못하고 편포된 양상을 드러내었다. 이에 순서화 로짓 분석시 예측력을 높이는 동시에, 모델에 투입된 시간사용변

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시간사용 변수는 모두 각 변수별 4분위(25%, 50%, 75% cut을 중심으로 4 집단 구분) 집단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편포된 남편의 시간은 3개 집단 (0, 25-75, 75+)으로 구분하였는데,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25% 분포가 0분으로 나타나서 분위 구분을 0%, 50%, 75% 지점의 시간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변수 분포에 관한 보다 자세한 구분내용은 <Table 2>와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간압박감

지난 2009생활시간자료 원자료에 있는 “평소에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perceived time pressure, 이하 PT)”라는 단일문항을 통해 시간압박감을 살펴보았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척도에서 “거의 느끼지 않음(1점)”, “종종 느낌(2점)”, 그리고 “항상 느낌(3점)”으로 리코딩하여 살펴보았다.

④ 남편의 피로도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배우자의 하루 시간배분정도를 가늠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시간이 더 소요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배우자의 유급이나 가사노동시간으로 차별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배우자의 특수한 상황들이 과연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배우자 상태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건강상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생활시간자료에서는 건강함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은 신체적 피로도의 수준을 측정할 항목이 유일하다. 이에 피로감을 묻는 단일문항(“평소에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십니까?”)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신체건강 수준을 가늠하였다. 시간일지에서 피로도도 4점짜리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고, '거의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느낀다 (4점)'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3. 분석전략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시간압박을 종속변수로서, 그리고 취업/비취업 여성의 시간활용(총노동시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과 재충전) 및 남편의 유·무급 노동시간을 독립변수로 순서화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취업/비취업여성 각각에 대해 동일한 변인들이 들어간 모델 두 개를 구축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E. Ruijter, 2004). 하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집단별 분포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설명하는 독립요인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결과적으로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집단별 차이의 격차를 설명한다는 관점이다. 구성요인들의 분포의 차이(compositional difference)를 본다는 것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처한 총노동시간의 환경이나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의 총량이 집단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혹은 취업/비취업여성에 따라 그들의 배우자의 평균 유무급시간양 역시 차별적일 수 있다. 만약 두 집단 간 시간압박 수준에서 차이가 관찰된다면 그것은 두 집단에서 관찰되는 독립변수의 분포와 종속변수가 맺고 있는 연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차이, 즉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의 차이나 효과의 민감성의 차이로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집단별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영향력의 차이(effect difference)에서는 두 집단을 설명하는 모델이 상이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집단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성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효과의 강도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간에 드러나는 시간압박감의 격차는 구성요인의 분포에서의 차이와 구성요인들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자 한다. 집단별 독립변수의 분포를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 및 그들의 남편의 시간변수의 분포를 분할표 분석결과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가 다른지 여부를 알기 위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계수(회귀식의 기울기) 크기의 차이를 순서화로짓 후 사후검증의 하나인 suest (seemingly unrelated test) 옵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취업과 비취업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에서의 격차

<Table 2>에서는 여성의 시간압박감 수준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의 지각수준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시간압박감을 '항상 지각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그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거의 지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취업여성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한편, 비취업여성은 시간압박을 종종 지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8%에 이른다. 시간압박감을 "항상 지각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승산비(Odds ratio)를 도출한 결과, 비취업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취업여성의 승산비가 3.18로 나타나, 시간압박감의 격차는 거의 3배가량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느끼는 시간압박의 격차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막내자녀의 연령별로 취업 및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과 시간압박감의 분포를 살펴보고, <Figure 1>에서 그 패턴을 제시하였다. 막대 그래프는 취업/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양을 나타낸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완만히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에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어린자녀가 있는 시기에 총노동시간이 길고, 그 이후에 총노동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450-480분 근처에서 거의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시간압박감은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하였는데,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이 거의 모든 시기에서 2.배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이미 자녀가 없는 시기에서부터 그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내에 0-4세의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취업/비취업 여성의 시간압박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을 높게 지각한다. 자녀가 학동기에 이른 집단에서는, 취업/비취업이후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취업여성의 경우 총노동시간이 자녀의 연령에 연동하면서 시간압박수준도 감소하는 패턴이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0-4세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시간압박감

Table 2. Perceived time pressure distribution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ives (% , Odds ratio)

	Employed	Non-Employed	Total
Rarely	1.59	5.66	3.45
Often	56.08	78.25	66.23
Always	42.33	16.09	30.31
Chi-square			
Odds ratio (Always vs. Others)	3.18	1.00	
LR χ^2		628.0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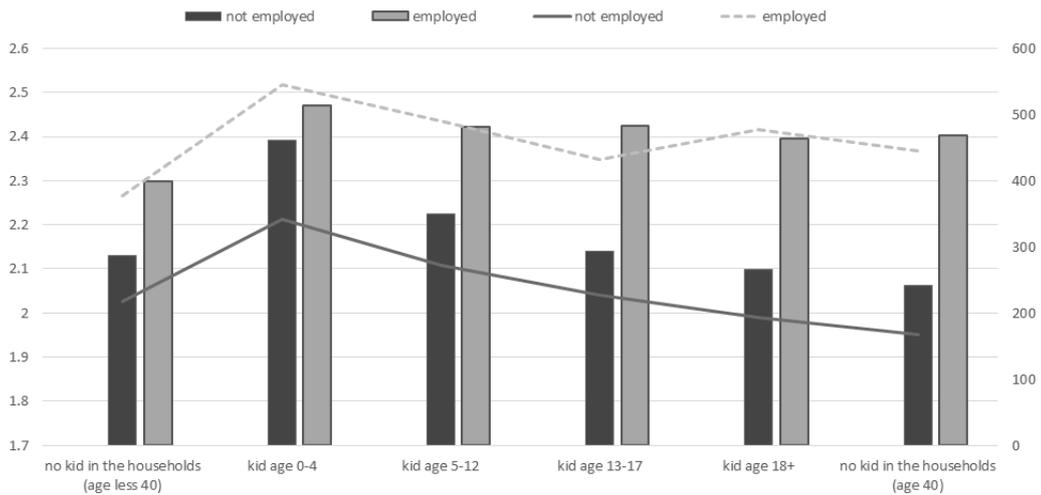


Figure 1. The gap in levels of perceived time pressure(bar) and total labor hours (line)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분포

이렇게,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일정한 격차를 가지고 상이한 경향성이 나타내는 것은, 취업/비취업여성 집단별로 나타나는 개인 및 가구의 특성 혹은 그들의 시간사용패턴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까? <Table 3>과 <Table 4>에서는 두 여성 집단 및 두 여성 가구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아내들의 총노동시간, 가사노동 사회화한 시간, 휴식 및 충전시간과 남편의 유급·무급노동시간 그리고 피로도의 분포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 포함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비취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어렸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훨씬 높았다. 남편의 학력도 비취업여성의 남편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구성을 보게 되면, 비취업여성이 속한 가구에 0-12세 이하 어린 자녀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에 포함된 비취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젊고, 어린자녀를 둔 고학력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가 어린 시기에 여성들이 직업경력을 단절하여 현재 비취업상태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소득은 취업여성의 가구가 비취업여성의 가구보다 소득이 100만원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노부모와 함께 동거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Table 4>에 나타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476.23분이었고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57.72분으로 약 120분(2시간) 가량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취업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72.41분, 그리고 비취업여성은 63.66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조금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 가사노동 사회화에 소요한 시간상으로 중앙값 이상(하루 평균 60분 이상) 활용한 여성이 취업여성은 59%에 달하지만, 비취업여성은 47%수준이었다.

한편, 휴식 및 재충전시간은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Table 3. Descripti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Employed (n=3,766)	Non-employed(n=3,182)	Chi-square
Wife age (mean sd)	40.71(6.75)	38.68(7.29)	
20's	5.31	11.50	
30's	35.79	45.13	213.35***
40's	49.60	34.32	
50's	9.29	9.05	
Wife Education			
Middle and under	11.90	8.61	
High school	54.36	51.51	60.69***
Some college	15.36	20.06	
University and above	18.38	19.81	
Husband Education			
Middle and less	9.29	6.79	35.43***
High school	60.65	57.20	
Some college and above	30.06	36.02	
Life cycle			
No kid in household (age 40 under)	7.22	6.98	
Kid age 1-4	14.34	31.8	
Kid age 5-12	33.35	31.43	362.07***
Kid 13-17	22.73	12.45	
Kid 18 +	14.98	12.19	
No kid in household (age 40+)	7.38	5.15	
Family income	394.90(167.58)	295.34(129.90)	27.28***
Household Type			
Parent child or couple households	93.45	95.45	12.71***
Three generation households	6.55	4.55	
Day of week			
Weekday	41.21	40.73	0.16
Weekend	58.79	59.27	

***: $p < .001$

비해 약 30분정도 더 길었다. 취업여성의 경우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이 전체 분포에서 하위 25%에 이르는 비율이 취업여성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비취업여성에 비해 휴식이나 재충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시간배분상황을 살펴보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남편의 하루 평균 유급노동시간은 각각 하루 평균 353분과 342분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주말일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일일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작게 파악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남편들의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약 10분가량 나타나지만, 분할표 분석결과 집단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무급 노동시간에서도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편들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평일과 휴일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 약 20분 남짓이다. 앞서 비취업여성이 속한 가구에는 어린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비취업여성의 남편 무급

노동시간에는 이러한 가구의 양육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이 아내의 취업상황이나 자녀연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피로도를 살펴보면, 기혼여성 응답자 남편들의 약 40%가 항상 피로하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이 느끼는 피로도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기혼여성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순서화 로짓 결과 및 민감도 검사

마지막으로 <Table 5>는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순서화 로짓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 결과표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특성들은 시간압박감이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시간압박이 높은 집단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의 오른쪽 칼럼에는 두 여성 집단의 모델의 비표준화회귀분석계수값의 크기를 비교한 민감도 검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독립변수의 회

Table 4. Distributions of time use of wife and their husband: Difference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Employed	Non-employed	Chi-square
Total work hours (mean, SD)	476.23(175.27)	357.72(150.46)	
0-25%	16.78	34.00	
26-50%	17.18	34.63	968.61***
51-75%	27.85	20.87	
76%+	38.18	10.50	
Outsourcing time (mean, SD)	72.41(48.41)	63.66(59.29)	
0-25%	13.86	28.32	
26-50%	26.21	24.24	
51-75%	33.30	24.02	205.27***
76%+	26.63	23.42	
Regenerating time (mean, SD)	590.26(101.25)	621.73(97.37)	
0-25%	29.88	18.20	
26-50%	26.29	21.78	236.95***
51-75%	23.00	28.94	
76%+	20.82	31.08	
Husband Paidwork (mean, SD)	353.04(222.15)	342.29(225.30)	
0-25%	21.08	23.89	
26-75%	51.96	50.05	7.83*
76% +	26.95	26.06	
Husband Unpaidwork (mean, SD)	20.31(36.28)	20.81(37.28)	
0%	72.35	72.60	
50%	16.84	15.56	3.4
76% and +	10.81	11.85	
Husband Fatigue (mean, SD)			
never tired	0.64	1.07	
time to time	8.66	8.36	5.52
often	48.33	49.65	
always	42.38	40.92	

*: $p < .05$, ***: $p < .001$

귀계수값의 크기나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관련요인들이 상호 통제된 가운데 시간압박감과 관련성이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면,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친 특성들 간에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노부모동거, 요일, 총노동시간,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 휴식 및 재충전시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로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여성의 총노동시간, 여성의 휴식 및 재충전시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로도이다.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친 특성의 종류나 수가 취업여성이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과정이나 맥락이 노동시간이나 휴식시간 차이 이외에도 다양하고 차별적임을 뜻한다. 비취업여성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시간압박감에 시달리는 취업여성들

은 대체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 수준이 높고,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주중에 비해 주말에 시간압박감 수준이 높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취업한 아내가 느끼는 시간압박감은 낮았다. 이렇게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노부모 동거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수준이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설명하는 독특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의 연령,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피로도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델 모두에서 관련성이 나타난 공통요인이었다. 그런데, 변수의 방향성이나 이들 변수가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연령과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은 동일하나, 실제로 자녀연령과 시간압박감의 연계패턴은 취업여부에 따라 상이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구(40세 이하)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시간압박감이 높았다. 그에 비해,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없는 경우에 비해 0-4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시간압박감이 유일하게 높게 나타

Table 5. Ordered logit analysis by employed status of married women

	Employed women			Non-Employed women			Difference in coefficient
	Coef.	S.E.	z	Coef.	S.E.	z	
Wife edu	0.26	0.05	5.61***	0.23	0.06	3.86***	0.20
Husband edu	-0.16	0.08	-2.09*	0.11	0.10	1.13	4.44*
Age	0.06	0.07	0.98	0.03	0.07	0.41	0.12
Age squ	0.00	0.00	-1.12	0.00	0.00	-0.36	0.21
Life cycle							
have kid age 1-4	0.74	0.17	4.41***	0.72	0.20	3.54***	0.01
have kid age 5-12	0.64	0.17	3.70***	0.53	0.22	2.40*	0.17
have kid 13-17	0.40	0.20	1.99**	0.26	0.26	0.98	0.17
have kid 18 +	0.83	0.22	3.69***	0.21	0.31	0.67	2.63†
no kid in household (age 40+)	0.74	0.24	3.13**	-0.08	0.34	-0.24	3.78*
Family income	0.22	0.09	2.38**	0.04	0.11	0.34	1.63
Day of week							
weekday	0.23	0.14	1.66†	-0.22	0.22	-1.03	2.94†
Family type							
three generation	-0.36	0.08	-4.33***	-0.06	0.10	-0.64	5.02*
Wife total work hours							
25-50%	0.08	0.12	0.68	0.11	0.12	0.97	0.03
50-75%	0.39	0.12	3.26***	0.50	0.14	3.50***	0.37
75%+	0.81	0.12	6.45***	0.89	0.18	4.97***	0.15
Wife outsourcing							
25-50%	0.07	0.12	0.59	-0.04	0.12	-0.32	0.40
50-75%	0.21	0.11	1.88†	0.02	0.13	0.18	1.17
75%+	0.29	0.12	2.43*	0.09	0.13	0.68	1.30
Wife regenerating time							
25-50%	-0.16	0.09	-1.77†	-0.09	0.14	-0.69	0.17
50-75%	-0.24	0.10	-2.35*	-0.21	0.13	-1.58	0.02
75%+	-0.20	0.12	-1.67†	-0.30	0.14	-2.13*	0.33
Husband paid work							
25-75%	0.03	0.10	0.34	0.14	0.12	1.11	0.43
75% +	0.13	0.11	1.16	0.21	0.14	1.47	0.21
Husband unpaid work							
25-75%	0.14	0.10	1.43	0.12	0.13	0.95	0.01
75% +	0.31	0.12	2.48*	0.68	0.15	4.55***	3.66*
Husband tired	0.49	0.05	8.99***	0.29	0.07	4.18***	4.77*
Thresholds1	1.44	1.38		0.76	1.46		
Thresholds2	6.06	1.38		5.60	1.46		
Number of obs			3,688			3,111	
LR chi2(26)			302.24			257.74	
Log likelihood =			-2632.55			-1889.33	
Difference in model (chi-square)			49.68***				

† : p<.10, *: p<.05, ***: p<.001

날 뿐, 막내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시간압박감이 생애주기 초기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해소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의 모든 시기에서 여성의 취업은 일정수준의 시간압박을 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과 남편의 무급 노동시간은 두 여성 집단 모두에서 정적인 관련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이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늘어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시간압박을 많이 느끼는 취업 혹은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이 무급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순서화 로짓 분석에서 기울기(비표준화계수)에 해당하는 계수값이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0.68이었고,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는 0.31이었다. 이에 대한 민감도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이 무급노동을 75%수준(110분 이상) 수행할 때 아내의 시간압박감 수준이 취업한 아내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2시간 남짓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취업여성보다 오히려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거의 두 배 가

량 높다. 이는 홀벌이 가족에서는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긴급한 상황일 때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투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순서화 로짓 모형에서 남편의 피로도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값 역시 유의미한 집단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표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게 되면, 비표준화계수값이 취업여성(0.49)이 비취업여성(0.29)보다 그 수치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피로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총노동시간과 휴식 및 재충전시간도 취업과 비취업여성의 모델에서 공통요인으로 나타난 특성들인데, 차별성 검사결과 계수값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총노동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시간압박감의 수준은 취업/비취업여성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휴식 및 재충전시간이 시간압박감 감소하는 효과 역시 두 여성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시간압박을 지각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 Shin, 2009 as cited in S. Cha, 2014).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시간압박감의 수준과 시간압박감과 관련된 요인들이 차별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빈곤을 겪는 인구로 지목되는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구성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기혼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9생활시간자료의 MTUS 버전 5.2 자료에 나타난 21-55세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시간압박감이 높았다. 시간압박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종종 느끼거나 시간압박감을 항상 느끼는 경우가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서 거의 3배가량 높았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빠르게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지만,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기혼여성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고려해 볼 때,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더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의 그 격차는 더 커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 결과, 기혼여성의 시간압박은 총노동시

간의 증가,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시간압박감과 시간활용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그런데 민감도 검사 결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총노동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거의 동일한 수준(기울기)으로 시간압박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상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은 노동시간의 장단 뿐 아니라 노동의 강도, 노동의 유형과 비중(e.g. 유급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실제 총노동시간과 시간압박감이 맺고 있는 연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총노동시간량에서의 집단간 차이는 시간압박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총노동시간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거의 120분가량 긴 반면,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은 30가량 적었다.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의 격차의 상당부분은 총노동시간과 휴식 및 재충전시간양에서 관찰되는 이 두 집단 간 격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취업여성의 총노동시간이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다.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이들의 가족역할 혹은 일-가족 양립을 이루기 위한 고전문투의 결과로 보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유급노동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정책에서 취업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기혼여성의 시간압박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위시간 당 휴식 및 재충전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시간압박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휴식과 재충전 행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시간압박감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상품대체는 여성의 일-삶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의 상품화와 시간압박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과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 모델에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시간 및 외식시간이 시간압박감을 감소시키는지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시간이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고, 또한 취업여성의 모델에서만 시간압박감과 유의미한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구매활동에 의존

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의 방향성이 취업여성이 가사노동 사회화의 시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시간압박감과 관련있게 나타나서 예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가사노동 사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식사나 그 밖에 가사일을 여성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시간압박이 해소된다는 방향성을 생각하게 된다. 다만, 횡단자료 분석 자료인 만큼, 가사노동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가사노동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 시간압박감도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사노동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와 시간압박감이 정적인 관련성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게도 서구연구(L. Craig & A. Powell 2013; O. Sullivan & J. Gershuny, 2013)과 동일한 패턴이다. 실제로 국외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사회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구매의 효과로 가사노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휴식시간이 느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하고 있다(L. Craig & A. Powell 2013; O. Sullivan & J. Gershuny, 2013). 즉, 아웃소싱으로 인해 확보한 시간은 오히려 자녀돌봄시간, 유급노동시간 등 다른 노동시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관련 서비스 받는 시간(세탁소 이용, 기타 서비스 이용, 및 외식)의 총합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어떠한 요인이 실제로 시간압박감을 낮추거나 강화시키는지 그 사회적 과정을 구체적 수준에서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과연 기혼 취업/비취업여성의 배우자의 시간활용방식에 따라 아내의 시간압박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취업 여성의 모델에서는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압박감은 낮아지는 방향이었다. 학력과 시간압박감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아내의 학력 역시 아내의 시간압박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띤다. 그런데,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압박감이 낮다는 것은 고학력 남성을 둔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나 도움이 시간압박감을 해소하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혀왔다(L. Craig, 2012; L. Craig, & A. Powell, 2013).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남편이 학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

담률이 낮아지면서 시간압박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는 남편의 무급노동이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과 정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높은 상황일 때, 긴급하게 남편의 무급노동이 장시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남편의 무급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편의 피로도 역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편의 상태 특히 건강상태 여하에 따라 남편의 원조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피로도가 높지 않아야 하고, 또한 남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무급 노동참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특성 중에서 무급노동시간과 피로도만 시간압박감과 관련 있게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남편들은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극히 응급한 상황 일 때, 무급노동시간을 투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편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은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을 강화하는 방향이기는 하나, 그 효과의 강도는 취업여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은 남편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 연계의 강도가 취업여성에 비해 약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비취업여성들은 그들의 시간압박감을 해소함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관련요인들이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내의 취업을 둘러싼 가구의 상황,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가족상황을 헤쳐 나가는 개별 가족의 전략이 차별적임을 뜻한다. 취업여성은 시간압박감의 수준이 높지만, 또한 시간압박감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 가령, 남편의 도움, 가사노동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며, 심지어 노부모의 도움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취업여성 가운데 이러한 자원동원이 가용하지 않다면, 이들은 매우 극심한 시간압박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이 낮고 남편의 피로도가 높고, 부모와 비동거 상황에 처한 취업여성의 경우,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나마 적은 소득을 사용해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 방법만이 유일해 보인다. 두 가지 해법 모두, 결국은 여성의 시간 혹은 소득자원에서의 희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취업여성은 시간압박감이 취업여성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시간압박감이 높았을 때, 이를 조율

할 수 있는 자원은 취업여성에 비해 빈약하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여성은 높은 시간압박감을 지각하더라도 가사노동의 일부를 사회화 할 가능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낮고, 남편의 시간투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취업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압박감이 매우 높은 특정한 상황에 처할 때야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기혼여성을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시간압박감의 격차와 관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현실세계에서 기혼여성은 그 대부분이 생애과정동안 취업/비취업 상태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K. Park, & Y. Kim, 2003). 자녀의 출산 전후로 기혼여성이 취업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압박감이 급작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비취업여성이 자녀양육기 이후 취업을 시도하게 되면, 극심한 시간압박감과 함께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동원의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기혼여성은 생애과정동안 서로 다른 시간압박의 영역(zone)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S. Cha., K. Eun, J. Jun & K. Fisher, 2015). 이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처럼 취업/비취업상태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나 자원이 매우 상이하는 것은 어느 한 집단에만 정책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시간압박감을 해소하는데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경력 전환을 감행할 때, 시간압박 변화의 간극, 이른바 시간충격(time shock)을 완화하면서, 시간압박감을 조절할 수 있는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횡단설계 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변수간의 관련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시간일지라는 형태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변수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사나 설문을 통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변수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가사노동서비스 시간과 외식이 고려되었는데, 실제로 전체 가사노동서비스 시간 중에서 외식시간의 비중이 다른 서비스 구매시간보다 길었다. 이는 생활시간자료가 일지형태의 자료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행동(e.g. 외식)이 빈번하지 않은 행동들(e.g. 세탁소 찾기, 청소서비스 받기)보다 잘 포착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시간일지형태의 자료에서는 저장식품 구매, 반조리식품 구매와 같이 가사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상품구매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 사회화의 수준이나 그

효과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와 다른 시간사용의 연계 그리고 시간압박감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간압박감이 정신건강, 신체건강, 삶의 만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지점을 밝히는 부분도 중요해 보인다. 2014생활시간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에 대해 주관적 건강함, 피로감, 생활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들이 추가된 만큼, 현재 나타나는 취업/비취업여성의 시간압박감이 두 집단 간 건강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후속연구들이 가능하다. 노동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 기혼여성이 노동시간을 어떻게 겪고 있고, 휴식과 재충전 해당하는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무엇인지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xter, J. (2002). Patterns of change and stability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ur in Australia, 1986 - 1997. *Journal of Sociology*, 38(4), 399-424.
- Bianchi, S. M., & Mattingly, M. J. (2003). Time, work,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8, 95-118.
-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 (2008).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Sage Publication.
- Bittman, M., &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 Bittman, M., Brown, J. E., & Wajcman, J. (2009). The mobile phone, perpetual contact and time pressure. *Work, Employment & Society*, 23(4), 90673-691.
- Burgard, S. A., & Ailshire, J. A. (2013). Gender and time for sleep among US adul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1), 51-69.
- Cha, S.-E. (2010). Who is the busiest in Korea?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in time pressur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27-49.
- Cha, S.-E. (2011). A Study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ime use: Focusing on the employed men and women in Korea by using 1999 and 2009 time diary data. *Korean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15(3), 131-151.
- Cha, S.-E. (2013). Weekend Time Use Among Married

- Couples: Who are able to sleep more on week-ends? *Family and Culture*, 25(3), 1-30.
- Cha, S-E., K. Eun, J Jun, & K. Fisher. (2015). Time allocation and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married women: Comparison with 7 nations in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ies) data.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20(1), 24-48
- Cho, H. K. (1997). Time use of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1), 1-14.
- Cho, H. K., Lee, K.-Y., Lee, Y. S., & Kim, O. S. (2000). A comparative study of working hou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ull-time working couples.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s*, 18(2), 1-14.
- Craig, L. (2012). *Contemporary motherhood: The impact of children on adult time* New York: Ashgate Publishing, Ltd.
- Craig, L., & Baxter, J. (2014). Domestic outsourcing, housework shares and subjective time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correlates of hiring help. *Social Indicators Research (online first: DOI 10.1007/s11205-014-0833-1)*.
- Craig, L., & Powell, A. (2013). Non-parental childcare, time pressur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work, domestic work and parental childcare. *Community, Work, & Family*, 16(1),100-119.
- Daly, K. (1996). *Families &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Vol.7) New York: Sage Publications.
- De Ruijter, E. (2004). Trends in the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and childcare in the Netherlands: Compositional or behavioral change? *Acta Sociologica*, 47(3), 219-234.
- England, P., & Srivastava, A. (2013). Educational differences in US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The role of culture and cross-spouse influence. *Social Science Research*, 42(4), 971-988.
- Gershuny, J. (2003).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 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mmer, L. B., Allen, E., & Grigsby, T. D. (1997). Work - family conflict in dual-earner couples: Within-individual and crossover effects of work and famil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2), 185-203.
- Ji, M. W., & Cho, M. S. (2014). Substitutability of spousal housework time in dual-earner households: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labor market time. *Women's Economic Review*, 11(1), 1-31.
- Jun, J. W. (2014). *Balance beyond work life: An empirical study of older people's time use in UK*.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Oxford, Oxford, UK.
- Kim, H. (2001). A study on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s*, 19(2), 83-96.
- Kim, J. S. (2005). Patterns of unpaid work at home for the middle ag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1), 173-201.
- Kim, J. S. (2010). Having meals together: Studies of couple of pre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3), 123-142.
- Kim, S. J., & Kim, E. J. (2007). Housework and economic dependency among dual-earner couples in Korea - economic exchange or gender compens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2), 147-174.
- Koo, H.-R., & Lee, K.-Y. (2000). A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market goods characteristics and the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s*, 18(3), 39-51.
- Lee, J., & Jung, G. (2015). Which couple has more shared leisure time? : The exploration of shared leisure time and marital relationship in Korea.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s*, 33(2), 149-164.
- Lee, K.-Y., Kim, O. S., & Koo, H.-R. (1995).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113-126.
- Mattingly, M. J., & Sayer, L. C. (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 Moen, P. (2003). *It's about time: Couples and careers*: Cornell University Press.
- Park, K.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ime conflict of married women workers between work and famil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oups and gender rol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2), 37-71.
- Park, K., & Kim Y. (2003). Patterns of Korean women's life cours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6(2), 63-90.
- Pleck, J. H., & Staines, G. L. (1985). Work schedules and

- family life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6(1), 61-82. 53-68.
- Ruijter, E. (2004). Trends in the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and childcare in the Netherlands: Compositional or behavioral change? *Acta Sociologica*, 47(3), 219-234.
- Schober, P. S. (2013). The parenthood effect on gender inequality: Explaining the change in paid and domestic work when British couples become pare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1), 74-85.
- Schor, J.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 Son, M.-G. (2004). Working wives' perception of time pressure. *Women's Studies*, 67, 159-198.
- Son, M.-G. (2005). An Empirical study on unpaid work time of dual-earner couples: Focusing on statistics from lifetime use survey. *Korean Feminism Studies*, 5(2), 239-287.
- Southerton, D. (2003). Squeezing time: Allocating practices, coordinating networks and scheduling society. *Time & Society*, 12(1), 5-25.
- Sullivan, O., & Gershuny, J. (2013). Domestic outsourcing and multitasking: How much do they really contribute? *Social Science Research*, 42(5), 1311-1324.
- Swisher, R., Sweet, S., & Moen, P. (2004). The family 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for dual 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81-292.
- Szollos, A. (2009). Toward a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 Society*, 18(2-3), 332-350.
- Ulferts, H., Korunka, C., & Kubicek, B. (2013). Acceleration in working life: An empirical test of a sociological framework. *Time & Society*, 22(2), 161-185.
- Van der Lippe, T., Tijdens, K., & De Ruijter, E. (2004). Outsourcing of domestic tasks and time-saving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5(2), 216-240.
- Westman, M., & Etzion, D. (1995). Crossover of stress, strain and resources from one spouse to anothe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2), 169-181.
- Yu, S.-Y., & Choi, Y.-J. (2002).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ults and influencing factors -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and leisur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and Living Science*, 13(3),

Received: July 15. 2015
 Revised: September 28. 2015
 Accepted: September 30. 2015